

## 학교의 주요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양 미 경(서강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 제도로서의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하기에 앞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갈등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주요 기능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선발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대별하고, 각 기능이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학교체제가 각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대학생과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844명)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교사, 학부모 각 집단에서 제시한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의 우선 순위는 교육 → 사회화 → 경제 → 선발 → 정치의 순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회화 → 경제 → 정치 → 선발 →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기능의 경우, 중요성은 가장 높게 인식된 것에 비해 효과성은 가장 낮게 인식되어 구성원들의 기대와 실제 효과 인식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학교 정책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시사점이 논의되었고, 아울러 학교의 기능은 논리적 분석에 의해 당위적이고 순조로운 방식으로 규정될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화 혹은 취사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드러내는 본 연구의 의의가 강조되었다.

**주요어:** 학교의 기능, 학교 기능별 중요성, 학교 기능별 효과성, 다중적 기능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높으며, 그만큼 학교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연구와 정책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계속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일상은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회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입안가, 행정가, 연구자들에게 모두 중요하다. 이해의 부족은 곧 개선점과 해결책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낳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된 실패를 야기하여 학교에 대한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의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갈등적 성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학교의 개혁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교가 요구받고 있는 기능 자체의 多重性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예는 매우 드물다. 학교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생활세계이자, 사회 제도의 하나이다. 사회의 모든 제도는 여러 가지 힘의 행사와 경합의 결과로 유지되거나 변화되어 간다. 실제로 학교는 그것이 탄생된 이후 줄곧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요구받고 또 수행해 왔다. 기존 통치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특정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전수하는 ‘정치적 기능’,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경제적 기능’,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성세대의 사회 질서, 규범, 지식 등을 전수하는 ‘사회화’ 과정과, 학력을 통해 지위를 배분하는 ‘선발’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인류의 전통과 자산을 소재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기능’ 등 학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치 갈등적인 측면도 많다.

학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소위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제로는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론상으로조차 불가능한 갈등적인 기능들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기대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면 국가나 시대에 따른 개선 노력 등과는 관계없이 ‘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가 지닌 위기라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 체계 내부의 부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 극복 가능한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 체계를 넘

어선, 학교에 대한 목표 자체의 혼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하기에 앞서, 학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의 성격을 바르게 규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체제가 각 기능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보다 우선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중요성이 높게 인식된 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화, 선발, 교육 기능 등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상호 갈등적인 기능들의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등의 개인 배경 변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교가 지닌 기능의 갈등적 측면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 정책연구들이 간과한 측면을 재조명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의 주요 기능별 중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대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하며, 응답자의 배경 변인(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 체제의 주요 기능별 효과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대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하며, 응답자의 배경 변인(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의 주요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의 실체가 지니는 이론적, 실천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의 다중적 기능: 설명의 관점

학교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탄생물로서, 그 탄생의 맥락이 예고했듯이, 사회로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아 왔고 또 실제로 그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왔다(김기석, 1999; 양미경, 2004; 장상호, 1986, 1997; Archer, 2013; Kliebard, 1987). 이하에서는 학교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관점과, 각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의 동향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학교의 정치적 기능

학교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19세기 근대 사회에서의 국가주의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학교의 출현 배경과 관련이 깊다. 근대 학교 제도는 세속, 대중, 의무, 국가 교육 등의 형식적 특징을 지닌 것, 그리고 소위 ‘근대 교과’로 알려진 교과를 가르치는 내용상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 것은 서양의 경우 약 이백년 전의 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백년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학교 제도는 각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동질성, 평등성 등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기석, 1999; 김재웅, 2013; 류방란, 1998; 이돈희, 1998; Archer, 2013; Kliebard, 1987). 즉 국가의 관료적 독점 상태 속에서 탄생한 학교 제도는 애초부터 ‘교육’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에 일차적인 가치를 두기보다는, 한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의 이념적 노선과 사회적 효율성에 부응하는 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 국가는 일방적인 지배를 통해 지배 계층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적 지배를 통해 한층 세련된 방식으로 지배한다. 기존 통치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특정한 이데올로기, 신념,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함에 있어서 학교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효과적인 조직이 아닐 수 없다. 통일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교과서 심의 제도, 국가적으로 통일된 대입 학력 평가 방식, 학교에 대한 각종 공문서와 지침의 하달 등 유형·무형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통해 학교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적 동질성 및 정체성의 함양을 위한 이러한 정치사회화 기능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김기석, 1999; 김영화 외, 1996, 1997; 김재웅, 2013; 안기성, 1994; Archer, 2013; Meyer et al., 1979; Tyack, 1976). 그런데 국가나 지배 계층의 견지에서 요청되는 학교의 정치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20세

기 초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국내외의 학계에서는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치중립적 관점이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김용일, 1995; 신현석, 1994). 그러나 그 이후 교육정치학이라는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종전의 시각은 ‘교육에 대한 비정치의 신화(apolitical myths of education)’(김용일, 1995)로 비판되었고, 학교체제가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한국 교육정치학회가 결성된 이래,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에 대한 많은 연구(김용일, 1994; 신현석, 1994; 신현석, 정용주, 2013; 안기성, 1994)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교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를 실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여 정책의 결정과정, 내용 및 결과에 있어서의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주된 연구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 나. 학교의 경제적 기능

학교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강조되어 온 인간자본론과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인의 양성 및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조는 학교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요구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1960년대 초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김영철, 공은배, 1983; 김영화 외, 1997; 이상기, 1988; 장수명 외, 2004; Woo, 1988 등)이 잔여요인 분석(성장 기여도 분석),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학교의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잔여요인 분석이란, 경제 성장, 즉 전체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노동, 자본 및 기타 자원 등과 같은 계측 가능한 투입 요인의 증가에 의해 기인된 소득 증가로 설명하고, 이러한 투입요인의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부분을 학교의 기여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 ‘교육 투자 수익률’<sup>2)</sup>이란 국가 또는 개인이 학교에 투입한 비용을 학교에 다님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수익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법은 국가별로 학교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다(김영화 외, 1996).

매거할 수 없이 많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학교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왔고, 시대, 학교급, 국가에 따라 그러한 기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학교 확대 효과를 수량적으로 측정된 연구(김영화 외, 1997)에 따르면, 60년대에는 전체 기여도 중 초

1), 2) 이들의 논의에서 ‘교육’은 사실상 학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등학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노동력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실증 분석한 연구(장수명 외, 2004)에서는 OECD 국가나 고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학 기회의 양적 확대가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 및 국가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다. 학교의 사회적 기능

학교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배분에 관계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각종 평가에 의한 적정 인원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교는 졸업 후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 성적 및 대학 입시를 둘러싼 우리 나라의 치열한 경쟁은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학교를 통해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출세열의 발로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학교 성적을 높여 남보다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맞물려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은 소위 ‘교육의 장’이라는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역설적인 사태가 별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기성 세대의 사회 질서, 규범, 가치관, 관습, 기술 등을 전수함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화’ 기능도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학교는 이외에도 일정 시간 동안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혹은 통제하는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좁은 구획으로 나뉜 공간, 엄격한 규율에 의한 통제와 별, 엄정한 출석 관리 등을 통해 학교는 미성년자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학교의 사회적 기능 중 특히 선발 및 배치와 관련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가 사회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사회 계층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지의 문제를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고(김성식, 류방란, 2008; 김영화, 1990; 김영화 외, 1997; 김위정, 2012; 방하남, 김기현, 2003; 이제봉, 1998; 한대동, 199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학력과 직업의 불일치 등 소위 ‘과잉 학력’ 문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분석(강순원, 1988; 정태화, 1994)도 이루어져 왔다.

#### 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

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기능 등과 더불어, 인류의 전통과 자산을 소재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그 위대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교육학 연구에서는 ‘학교의 실제’와 ‘교육’을 동일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김영화 외, 1996; 1997; 전상진, 2011; Bridges, 2008; Depaep & Smeyers, 2008; Labaree, 2008; Lambeir & Ramaekers, 2008; Smeyers & Depaep, 2008)하면서 정작 ‘교육적’ 기능은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학교가 바로 ‘교육 기관’이고, 교육 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제도적, 상식적 개념으로서의 ‘학교’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학교의 실제’와 ‘교육’의 의미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육의 고유한 가치와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주목해 온 시도로 ‘교육본위론’으로 칭해지는 일련의 연구<sup>3)</sup>들을 들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교육은 위대한 인간의 실재성에 접근해가는 것으로, 생존을 위한 여타의 활동에서는 맞볼 수 없는 내재적 희열과 만족을 주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권력, 재화, 지위 등의 획득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구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세속계’와 달리, 교육은 그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라는 특성을 지닌다. 자증, 자조, 순차, 존현, 혁신, 자리 등의 ‘상구(上求)교육’의 특성과 타증, 원조, 역차, 존우, 보수, 이타 등의 ‘하화(下化)교육’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수레바퀴 모형’(장상호, 1997, 2009b)을 중심으로 교육의 구조와 내재율이 제안되어 여러 후속 논의에서 원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한 축인 배움의 내재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 ‘전인격적 관여’, ‘향유’, ‘존재적 고양감’,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 등이 제안(양미경, 2012)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기능은 학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 등과 갈등적 관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모습은 교육 고유의 가치 구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컨대, 제도적으로 규정한 학교 교육과정이 교사와 학생을 일종의 기계로 만들어 복잡한 절차와 기법으로 뒤엉킨 미로 속을 아무런 생각없이 견도록 만든다고 비판한 Chomsky(2000/2001)의 다음 지적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규격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권을 거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 이 과정에서 교사는 기계적인 학습과 암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 학생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격화된 시험문제에 쏟아내야 하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는 커녕, 학생의 정신은 점점 무디어져갈 뿐이다. 시인 존 애쉬버리는 <시란 무엇인가?>에서 “학교에선/ 모든 생각이 지워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곤 텅빈 별판과도 같았다”라고 이런 현상을 정확히 꼬집어냈다. (Chomsky, 2000/2001, p. 17)

3)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매권 600-1000페이지에 이르는 『학문과 교육(상, 중 I, II, III, 하)』(장상호, 1997, 2005, 2009a, 2009b, 2000)시리즈 및 『교육원리연구(1-14권)』에 게재된 논문 등을 참조하기 바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Novello(1998)는 현재의 학교 체제를 형성한 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기반의 분석을 통해 ‘주정부 주도의 학교체제는 자아실현을 저해하도록 귀착된 제도’임을 역설하고 이를 주정부로부터 분리시켜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 마. 학교의 다중적 기능 간의 갈등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의 다중적 기능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기대는 각양각색이자 상호 갈등적인 양상을 빚고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개혁은 성공과 만족보다는 혼돈과 불만을 키워왔다. 실제로 학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와 기능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하다가도 이내 흔적없이 사라지는 학교 개혁의 일회성과 비체계성은 학교에 대한 갈등적인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baree(2008)는 서로 갈등되는 방향으로 학교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핵심적 긴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학교가 ‘민주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능성’ 등 광범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선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으면서, 동시에 학력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 접근, 즉 최고 수준의 권력, 재화, 신분을 얻는 상징체계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적인 선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구조가 요구될 수도 있고, 위계적이고 가파른 층화된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yack & Cuban(1995/ 2011) 역시 개혁 논의와 그 실행이 순환되는 것은 학교의 기능에 대한 갈등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접근성과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적인 정치와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에서의 기회에 대한 구성 사이의 긴장이 개혁 논리에 반영되어 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Bridges(2008)는 교육 기관이 온갖 사회적, 정치적 요구들의 부담에 의해서 서서히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감당해야 할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를 가리는 규범적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학교’와 ‘교육’ 혹은 ‘교육 기관’을 동일시하는 개념들의 한계로 인해 그가 강조하는 ‘교육적인 목적’, ‘교육적 책임’ 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사회의 다중적인 기능들의 수행을 요구받는 학교를 통틀어 ‘교육 기관’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고유한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 책임을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범주착오인 셈이다.

따라서 “학교, 즉 ‘교육 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능 등을 요구받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학교는 여러 기능의 복합적 요구를 받고 있는 ‘사회적 기관’이고, 여러 기능 중, 정치, 경제, 사회 기능이 아닌 별도의 ‘교육’ 기능이 있다”는 관점(양미



경, 2014; 장상호, 1997)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허상을 버리고, 그 대신 학교에서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 중 어떤 기능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경험적으로 포착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우리나라 학교의 기능에 대한 요구 및 인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

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교에 대한 다중적이고 갈등적인 사회적 기대와 인식의 문제를 다룬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특성과 차별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교육관·유형적 특성과 갈등』(이종재 외, 1981)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관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상이한 관점들이 어떠한 양상의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추구하는 교육관과 현실적인 상황 간에 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주의와 효율주의 지향 간의 갈등, 보수성과 진보성 간의 갈등이 지적되었으며, 신분 및 지역, 계층 간에 관점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배천웅 외, 1986)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에서 국가발전보다 학생 개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실용 중심보다 학문 중심 구성을 선호하는 등의 특성을 밝혔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전경갑 외, 1987)에서는 개인주의, 업적주의, 대중주의가 우세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 연구』(김영화 외, 1994)에서는 한국인의 교육의식과 실제 교육행위 간에 괴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귀속주의적 의식 성향보다 노력주의, 능력주의, 업적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2000년대에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강영혜 외, 2003)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기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점, 평등과 수월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 학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평준화 확대 요구 및 국가 주도적 관리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성격: 다중성과 모호성’(양미경, 2004)에서는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의 성격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은 학교에 대해 다양하고 갈등적이며 양립 불가능한 기능들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력, 소득, 자녀의 성적 등에 따라 상당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사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가치 기준이 가변적이어서 그 판단 기준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관련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학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와 의식, 가치관 등을 비교적 의미 있게 분석해내고 있다. 연구에 따라 분석의 방법론이나 관점에 차이가 있으나, 학교의 기능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가 다분히 갈등적이고 다중적이며 모호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되, 학교의 기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사회화, 선발), 교육적 기능으로 범주화하여 각 기능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각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학교 체제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발전과 관련한 학교의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국가의 학교 정책 입안과 운영과정에 보다 적절하고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학교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주관적 평가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과 중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집이 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자의 배경 변인(지역, 학교급, 경력, 학업 성적, 소득 등)이 가능한 한 안배되도록 선정하였다. 학생집단을 대표하여 대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 내용이 학교의 여러 기능들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적 변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고급 인지능력을 갖춘 대학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대학생 315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의 교사 240명과 학부모 289명 등 총 844명의 설문 응답지가 회수(회수율: 87%)되어 연구자료로 분석되었다.

주요 변인별 표집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별 표집 분포

구 분			사 례 수	비율(%)
대학생	학교 성적	매우 우수	92	29.2
		우수한 편	116	36.8
		보통	91	28.9
		미흡한 편	15	4.8
		매우 미흡	1	0.3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69	21.9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64	20.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7	30.8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7	21.3
		150만원 미만	18	5.7
전체		315	100.0	
교사	지역	대도시	139	57.9
		중소도시	61	25.4
		읍면	40	16.7
	학교급	중학교	127	52.9
		고등학교	113	47.1
	전체		240	100.0
학부모	지역	대도시	182	63.0
		중소도시	45	15.6
		읍면	62	21.5
	학력	대학원졸	26	9.0
		대졸	172	59.5
		고졸	82	28.4
		중졸이하	9	3.1
	자녀의 학교 성적	매우 우수	16	5.5
		우수한 편	77	26.6
		보통	130	45.0
		미흡한 편	50	17.3
매우 미흡		16	5.5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54	18.7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89	30.8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3	32.2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5	15.6	
	150만원 미만	8	2.8	
	전 체		289	100.0

## 2. 도구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해내기 위해 대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집단간 반응의 일관성있는 비교를 위해 설문 문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선행연구(김영화 외, 1996, 1997, 양미경, 2004, 장상호, 1997)를 기초로, 학교가 지닌 여러 기능들을 ①정치적 기능, ②경제적 기능, ③사회화 기능, ④선발 기능, ⑤교육적 기능으로 대별하여, 각 기능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을 각각 동수로 순서를 섞어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을 5단 평정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화’ 기능과 ‘선발’ 기능은 모두 ‘사회적 기능’에 포함되지만, 세부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기능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도구의 주요 내용과 신뢰도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주요 내용 및 신뢰도

주요 기능	항목	신뢰도 (Cronbach's $\alpha$ )		응답 내용, 방식
		중요성 문항	효과성 문항	
1. 정치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통치질서의 안정</li> <li>○ 국민으로서의 동질감 제고</li> <li>○ 국민적 정체성 함양</li> </ul>	$\alpha = .78$	$\alpha = .80$	각 항목별 중요성 및 효과성의 평가, 5단 평정
2. 경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인력 양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li> <li>○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li> <li>○ 국가의 경제적 대외 경쟁력 제고</li> </ul>	$\alpha = .72$	$\alpha = .75$	
3. 사회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성원으로서의 가치관과 규범의 공유</li> <li>○ 가치있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li> <li>○ 사회적 관습과 문화의 전승</li> </ul>	$\alpha = .69$	$\alpha = .70$	
4. 선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기회 제공</li> <li>○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과 보상</li> <li>○ 학력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li> </ul>	$\alpha = .70$	$\alpha = .79$	
5. 교육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잠재력과 흥미의 구현</li> <li>○ 배움의 내재적 가치와 희열의 경험</li> <li>○ 경험의 계속적 성장을 통한 개별적 자아의 실현</li> </ul>	$\alpha = .81$	$\alpha = .86$	

### 3. 자료 처리

설문 조사 결과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의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산출되었고, 집단 간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과 Scheffe 사후 검증 등이 실시되었다.

가.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인식 분석: 응답자의 배경변인(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에 따른 중요성 인식의 차이 비교:

5단 평정의 응답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각각 5, 4, 3, 2, 1로 수치화한 후, ①신분별로 학교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어떤 기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집단별 기능 간 중요성 인식의 평균 비교), ②기능별로 집단 간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기능별 집단 간 중요성 인식의 평균의 차이 비교). 단, 지면의 한계로 일부 통계 결과만 본문에 제시하였다.

나.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 인식 분석: 응답자의 배경변인(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에 따른 효과성 인식의 차이 비교:

5단 평정의 응답에 대해 각각 ‘매우 효과적이다’부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까지 각각 5, 4, 3, 2, 1로 수치화한 후, ①신분별로 학교의 기능에 대한 효과성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집단별 기능 간 효과성 인식의 평균 비교), ②기능별로 집단 간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기능별 집단 간 효과성 인식의 평균의 차이 비교). 단, 지면의 한계로 일부 통계 결과만 본문에 제시하였다.

다.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결과의 종합:

학교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표화하고, 평면 좌표에 학교 기능별 중요성(X축)과 효과성(Y축)을 함께 표시하여, 학교의 기능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요구와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인식의 결과 분석

#### 가.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인식의 결과 비교

학교의 주요 기능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단 평정 척도에 응답하게 한 결과, 각 신분별로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3>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의 우선 순위(신분별)

구 분	대학생(N=315)		교사(N=240)		학부모(N=289)		전체(N=844)		
	기능	평균	기능	평균	기능	평균	기능	평균	표준편차
1순위	교육	4.40	교육	4.49	교육	4.32	교육	4.40	.58
2순위	사회화	4.02	사회화	4.28	사회화	4.15	사회화	4.14	.53
3순위	경제	4.01	경제	4.12	경제	4.06	경제	4.06	.61
4순위	선발	3.88	선발	4.09	선발	3.95	선발	3.96	.64
5순위	정치	3.32	정치	3.77	정치	3.78	정치	3.61	.73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 교사, 학부모 각 집단의 반응,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응답자 전체의 반응에서 학교의 기능별 우선 순위의 순서가 놀랍게도 모두 일치하였다. 가장 중요한 학교의 기능이 ‘교육’ 기능이라는 점에서 전 응답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회화 → 경제 → 선발 → 정치의 순위로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였음이 매우 흥미롭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 기능은 ‘개인의 잠재력과 흥미의 구현’, ‘배움의 내재적 가치와 희열의 경험’, ‘경험의 계속적 성장을 통한 개별적 자아의 실현’ 등의 문항을 통해 그 중요성의 정도가 측정되었던 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학교의 일차적 기능이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M= 4.4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여타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 판단 수치에 비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사회성원으로서의 가치관과 규범의 공유’, ‘가치있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 ‘사회적 관습과 문화의 전승’과 같은 사회화 기능이 전 집단에서 두 번째 중요한 기능(M= 4.14)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국가 통치질서의 안정’, ‘국민으로서의 동질감 제고’, ‘국민적 정체성 함양’

등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M= 3.61)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인식의 집단간 차이 검증

학교의 주요 기능별 중요성의 인식 정도가 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신분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가장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인식의 차이 검증(신분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Scheffe 사후검증
정치적 기능	대 학생	3.32	.71	$F = 42.28^{***}$ df = 2	교사, 학부모> 대 학생
	교 사	3.77	.71		
	학부모	3.78	.69		
경제적 기능	대 학생	4.01	.56	$F = 1.93$ df = 2	
	교 사	4.12	.63		
	학부모	4.06	.65		
사회화 기능	대 학생	4.02	.50	$F = 17.09^{***}$ df = 2	교사>학부모> 대 학생
	교 사	4.28	.50		
	학부모	4.15	.55		
선발 기능	대 학생	3.88	.64	$F = 7.51^{**}$ df = 2	교사>학부모, 대 학생
	교 사	4.09	.57		
	학부모	3.95	.67		
교육적 기능	대 학생	4.40	.61	$F = 6.27^{**}$ df = 2	교사>학부모
	교 사	4.49	.52		
	학부모	4.32	.59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의 우선 순위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에서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각 집단에서 실제로 평정한 중요성의 크기에서는 5가지 기능 중 경제적 기능을 제외한 4가지 기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별 중요성 평정 점수를 교사가 일관성 있게 가장 높게 매기고, 그 다음 학부모, 대학生の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Scheffe 사후검증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바로 이어 논의될 각 기능별 효과성의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각 기능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분 이외의 다른 배경변인별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다른 기능에 비해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집단 간의 반응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면의 한계로 교육적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지역, 학교급, 경력 등의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 성적, 소득 등에 있어서 일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차이 검증(학력, 성적, 소득별)<sup>4)</sup>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차 이 검 증
학 력	대학원졸	27	4.41	.47	$F = 3.14^*$ $df = 3$
	대졸	172	4.38	.53	
	고졸	82	4.19	.72	
	중졸이하	9	4.00	.44	
	전 체	290	4.32	.59	
학 교 성 적	매우 우수	108	4.48	.54	$F = 2.74^*$ $df = 4$
	우수한 편	193	4.34	.56	
	보통	221	4.37	.62	
	미흡한 편	65	4.25	.69	
	매우 미흡	17	4.06	.63	
	전 체	604	4.36	.60	
가 구 당 월 평 균 소 득	700만원 이상	123	4.40	.57	$F = .31$ $df = 4$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53	4.34	.5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0	4.34	.63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2	4.38	.61	
	150만원 미만	26	4.31	.61	
	전 체	604	4.36	.60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평가에 있어서 학력과 학교 성적에 따른 집단 간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인(대학생) 혹은 자녀의 학교의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력에 따른 응답 분석은 학부모 집단만 포함되었고, 학교 성적과 가구당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응답 분석의 경우, 대학생과 학부모 집단만 포함되었음(대학생은 본인의 고교 성적의 수준을, 학부모는 중고생 자녀의 학업 성적을 전국 수준에 비추어 응답하도록 함).



## 2.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 인식의 결과 분석

### 가.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 인식의 결과 비교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주요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단 평정 척도에 응답하게 한 결과, 각 신분별로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의 인식(신분별)

구 분	대학생(N=315)		교사(N=240)		학부모(N=289)		전체(N=844)		
	기능	평균	기능	평균	기능	평균	기능	평균	표준편차
1순위	사회화	3.08	사회화	3.37	사회화	3.05	사회화	3.15	.68
2순위	경제	2.98	경제	3.21	경제	3.02	경제	3.06	.68
3순위	선발	2.90	정치	3.18	정치	2.93	정치	2.98	.68
4순위	정치	2.89	선발	3.09	선발	2.91	선발	2.96	.71
5순위	교육	2.39	교육	3.01	교육	2.86	교육	2.73	.83

앞서 살펴 본 중요성의 우선 순위와 달리, 효과적인 정도에 대한 평가는 사회화 → 경제 → 정치 → 선발 →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결과는 학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가 주목하였던 ‘교육 기능’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제일 최하위(M = 2.73)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봐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한편,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 1순위와 2순위의 기능은 각 집단 공히 사회화, 경제의 순으로 일치된 견해를 나타낸 것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은 선발 기능의 효과성을 정치 기능의 효과성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게 평가하였고, 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 그리고 전체를 통합한 응답자의 반응에서 모두 정치, 선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기능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된 사회화 기능조차도 평균 3.15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의 실제 기능에 대해 구성원들이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 인식의 집단간 차이 검증

학교의 주요 기능별 효과성의 인식 정도가 신분, 지역, 학력, 성적, 경제적 수준, 경력 등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중요성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 인식의 차이 검증(신분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Scheffe 사후검증
정치적 기능	대 학생	2.89	.72	$F = 14.45^{***}$ df = 2	교사>학부모, 대 학생
	교 사	3.18	.68		
	학부모	2.93	.60		
경제적 기능	대 학생	2.98	.67	$F = 9.15^{***}$ df = 2	교사>학부모, 대 학생
	교 사	3.21	.65		
	학부모	3.02	.68		
사회화 기능	대 학생	3.08	.65	$F = 17.37^{***}$ df = 2	교사> 대 학생, 학부모
	교 사	3.37	.67		
	학부모	3.05	.69		
선발 기능	대 학생	2.90	.73	$F = 5.83^{**}$ df = 2	교사>학부모, 대 학생
	교 사	3.09	.71		
	학부모	2.91	.69		
교육적 기능	대 학생	2.39	.77	$F = 48.50^{***}$ df = 2	교사, 학부모> 대 학생
	교 사	3.01	.77		
	학부모	2.86	.83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의 순위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에서 1, 2, 5위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고, 3, 4위의 경우도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평정한 효과성의 크기에서는 5가지 기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별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사집단이 일관성 있게 가장 높게 매기고, 학부모와 대학생 집단은 교육적 기능의 경우만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Scheffe 사후검증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서 논의한 기능별 중요성의 평가에서와 유사한 응답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 기능별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분 이외의 다른 배경변인별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른 기능에 비해 교육적 기능에 있어서 일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지면의 한계로 인해 교육적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효과성 인식에 있어서 지역, 학교급, 경력 등의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 성적, 소득 등에 있어서 약간의 반응 차이가 드

러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차이 검증(학력, 성적, 소득별)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학력	대학원졸	27	2.82	.95	F = 1.36 df = 3
	대졸	172	2.80	.84	
	고졸	82	2.99	.77	
	중졸이하	9	3.15	.84	
	전 체	290	2.87	.59	
학교 성적	매우 우수	108	2.28	.83	F = 7.13*** df = 4
	우수한 편	193	2.65	.83	
	보통	221	2.65	.81	
	미흡한 편	65	2.87	.85	
	매우 미흡	17	2.96	.59	
	전 체	604	2.62	.84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0만원 이상	123	2.46	.92	F = 1.43 df = 4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53	2.68	.7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0	2.65	.78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2	2.61	.90	
	150만원 미만	26	2.69	.73	
	전 체	604	2.62	.84	

먼저,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본인 혹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평균 2.28이라는 매우 낮은 평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록 효과성의 평점이 다소 높아져, ‘매우 미흡하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평균 2.96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학교 성적에 따른 평정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학력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중졸 이하 혹은 고졸인 응답자에 비해 교육적 기능의 효과성을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700만원 이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게(M= 2.46) 평가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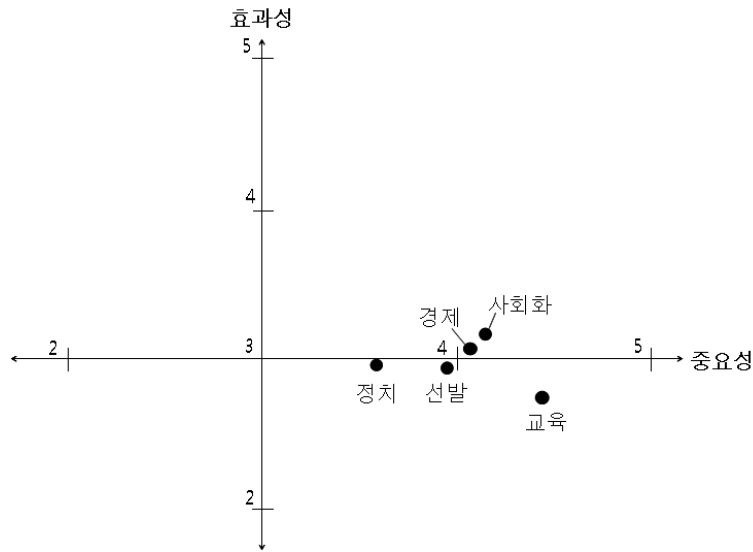
### 3.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 결과의 시사점

앞서 살펴 본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

균과 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9> 및 [그림 1]과 같다.

<표 9>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의 종합(N=844)

기능	중요성		효과성	
	평균	순위	평균	순위
교육	4.40	1	2.73	5
사회화	4.14	2	3.15	1
경제	4.06	3	3.06	2
선발	3.96	4	2.96	4
정치	3.61	5	2.98	3



[그림 1]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의 좌표화(N=844)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적 기능’의 경우, 중요성은 가장 높게 인식된 것(M=4.40)에 비해 효과성은 가장 낮게 인식되어(M=2.73) 구성원들의 기대와 실제 효과의 인식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학교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흥미의 구현’, ‘배움의 내재적 가치와 희열의 경험’, ‘경험의 계속적 성장을 통한 개별적 자아의 실현’ 등의 교육 기능이 가장 중핵적인 기능으로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중요성의 측면에서 2위와 3위를 나타낸 ‘사회화 기능’(M=4.14)과 ‘경제적 기능’(M=4.06)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각각 1위(M=3.15)와 2위(M=3.06)로 나타나, 중요

성과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 구성원들은 ‘사회성원으로서의 가치관과 규범의 공유’, ‘가치있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 ‘사회적 관습과 문화의 전승’ 등의 사회화 기능과 ‘우수한 인력 양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국가의 경제적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기대와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 기능이나 경제적 기능은 교육적 기능과는 여러 측면에서 갈등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화 기능이나 경제적 기능은 모두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존속 혹은 발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 규준에 부합하는 평균인을 지향하거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능력의 발현을 요구하는 도구적 관점의 인간관을 견지함으로써, 개별적 자아의 존엄성과 성장,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희열의 향유 등과 같은 가치의 추구하고 상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발 기능’은 중요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4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적 기능과 선발 기능은 둘 다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지만,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른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선발 기능은 사실상 교육 기능과 가장 가치갈등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약화시켜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실제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큰 차이를 둬으로써 그 방향을 제언한 셈이다. 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낮다고 보는 것과 그 기능으로 인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치적 기능’의 경우, 학교의 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효과성은 3위로 나타났다. ‘국가 통치질서의 안정’, ‘국민으로서의 동질감 제고’, ‘국민적 정체성 함양’ 등의 정치적 기능은 사실상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보다는 국가나 정부 지도층의 견지에서 그 중요성이 요청되는 것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즉 국가 통치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권위적 가치 배분과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은 그것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 제도로서의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하기에 앞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갈등적 성격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주요 기능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선발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대별하고, 각 기능들이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체제가 각 기능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대학생과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844명)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교사, 학부모 각 집단에서 제시한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의 정도가 교육 → 사회화 → 경제 → 선발 → 정치의 순위로 모두 일치된 반응을 보였음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 외, 개인의 신분, 학력, 성적 등에 따라 기능별 중요성에 대한 평점 크기에서는 일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 학교의 기능별 효과성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가 결과, 사회화 → 경제 → 정치 → 선발 →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 간에 거의 유사한 반응 양상을 보였다. 효과성의 경우도 개인의 신분, 성적 등에 따라 평점 크기에서는 일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번째, 학교의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교육적 기능’의 경우, 중요성은 가장 높게 인식된 것에 비해 효과성은 가장 낮게 인식되어 구성원들의 기대와 실제 효과 인식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학교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교육적 기능이 가장 중핵적인 기능으로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그 외 중요성의 측면에서 2, 3위,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1, 2위로 나타난 ‘사회화 기능’과 ‘경제적 기능’, 중요성과 효과성에서 모두 4위로 나타난 ‘선발 기능’, 그리고, 중요성이 가장 낮고, 효과성은 3위로 나타난 정치적 기능 등에 대한 반응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모든 개혁들은 사실상 가치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갈등되는 가치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도출된 방안에 의해 해소되기는 어렵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사회적 동요와 여론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정한 가치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며, 미디어, 이해 집단, 정치적 단체 등에 의해 정책으로 변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uban(1990)은 “학교를 둘러싼 가치의 갈등은 학교에 대한 과학의 기적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학교의 기능이 개념적, 논리적 분석에 의해 당위적으로 규정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화 혹은 취사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본 연구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학교가 하는 모든 일이 곧 ‘교육’이라거나,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만을 위해 탄생된 것이므로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을 갖

기가 어렵다. 학교에는 교육 이외의 기능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할 때, 오히려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선명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무조건 교육 가치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보다는, 여타 기능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차별화를 통해 교육적 기능의 고유 가치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 실제 사회구성원들이 여러 갈등하는 가치 중에서 과연 어떠한 가치가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포착해내는 것이 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 강순원(1988). 197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치경제학적 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영혜 외(2003).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기석(1999). 『교육역사사학회』.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성식·류방란(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배경, 학생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영철·공은배(1983).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1990).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 배경의 영향 추이(1967~1984). 『교육학연구』, 28(3), 65-81.
- 김영화·이인효·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한유경·최돈민·양승실·조준래(1996). 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박용현·한승희(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용일(1994).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고찰. 『교육정치학연구』, 1(1), 1-34.
- 김용일(1995). 교육에서 '비정치의 신화'에 관한 고찰. 『교육정치학연구』, 2(1), 78-96.
- 김위정(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재웅(2013). 『미국 공교육의 역사 새로 보기』. 서울: 교육과학사.
- 류방란(1998).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교육사학연구』, 제8집. 서울대학교 교육사학회.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 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배천웅·최상근·박인중(1986).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신현석(1994). 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I): 역사적 접근. 『교육정치학연구』, 1(1), 35-54.
- 신현석·정용주(2013).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20(3), 217-257.
- 안기성(1994). 한국 교육정치학의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1), 55-77.
- 양미경(2004).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성격: 다중성과 모호성. 『교육학연구』, 42(2), 133-162. 한국교육학회.
- 양미경(2012). 내재적 학습 동기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교육연구』, 20(4), 187-209. 한국열린교육학회.
- 양미경(2014). '사회문제의 교육문제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의의와 한계. 『교육원리연구』, 19(1), 31-50. 한국교육원리학회.
- 이돈희(1998). 공교육제도의 발달: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대백과사전』, 138-143. 하우동설.
- 이상기(1988).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재 · 정영애 · 이인효 · 이영노(1981). 한국인의 교육관 - 유형적 특성과 갈등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제봉(1998). 학업성취와 진로선택 중심으로 본 학교교육의 역동성: 인종과 사회계층 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8(1), 1-18.
- 장상호(1986). 교육학의 비본질성. 『교육이론』, 1(1), 5-5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상호(2000). 『학문과 교육(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중 I):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상호(2009a). 『학문과 교육(중 II): 교육본위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상호(2009b). 『학문과 교육(중 III): 교육연구의 새 지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수명 · 공은배 · 이한일(2004).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경갑 · 최상근 · 백은순(198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상진(2011). 누가 왜 교육을 경멸하는가?: ‘교육의 경멸’ 논변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모색. 『문화와 사회』, 10, 327-369.
- 정태화(1994). 한국의 과잉교육 현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과잉학력노동자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대동(1992). 고등교육 획득의 분화 및 계층화의 결정 과정과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1), 117-145.
- Archer, M. S. (2013). *Social origins of educational systems*. New York: Routledge.
- Bridges, D. (2008). Educationaliza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ask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solv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ducational theory*, 58(4), 461-474.
- Chomsky, N. (2000/ 2001). *Chomsky on Miseduc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강주현 역.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서울: 아침이슬)
- Cuban, L. (1990). Reforming again, again, and again. *Educational Researcher*, 19(1), 1-13.
- Depaepe, M. & Smeyers, P. (2008). Educationalization as an ongoing modernization process. *Educational theory*, 58(4), 379-389.
- Kliebard, H. M. (1987).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 Labaree, D. F. (2008). The winning ways of losing strategy: Educationalizing soci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Theory*, 58(4). 447-460.
- Lambeir, B. & Ramaekers, S. (2008). Humanizing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ization of health. *Educational Theory*, 58(4). 435-446.
- Meyer, J. W., Tyack, D., Nagel, J., & Gordon, A. (1979). Public education as nation-building in America: Enrollments and bureaucratization in the American states, 1870-193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3), 591-613.
- Novello, M. K. (1998). *All the Wrong Reasons: The Story Behind Government School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meyers, P. & Depaepe, M. (2008). Introduction- Pushing social responsibilities: The Educationalization of social problems. In P. Smeyers, & M. Depaepe (Ed.). *Educational Research: The*

*Educationalization of social problems.* (pp. 1- 12). Springer.

Tyack, D. (1976). Ways of seeing: An essay on the history of compulsory school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46(3), 355-389.

Tyack, D. & Cuban, L. (1995/2011).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reform.*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권창욱 · 박대권 공역. 『학교 없는 교육개혁: 유토피아를 꿈꾼 미국 교육개혁 100년사』. 서울: 렉스미디어.)

Woo, J. (1988). The contribution of college graduates to national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64-8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

## ABSTRACT

### **An Investigation into the perceptions on the functions of schooling by undergraduates, teachers and parents**

Professor, Sogang University

Mikyeong Ya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various demands and attitudes of diverse social groups toward the functions of schooling, on which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policies should be based. The functions of school as a social institute are distinguished into five categories, i.e., political function, economic function, socialization function, social selection function, and educational function. A sample of 844 persons comprised of undergraduates, teachers and parents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schooling in terms of its major fun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he three groups had the identical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schooling by its functions. They put the highest priority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school, followed by socialization, economic function, social selection, and political function. Interestingly, however, the rank of perceived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function of school was at the lowest, while the top of the rank was on the socialization function, followed by economic function, political function, and social selection func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evere gap between the demand for what schooling should be and the perception of reality about what schooling i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policies should be based on the empirical studies about social demands and evaluation on functions of schooling rather than the logical analysis or normative assertions. A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multiplicity and vagueness of the social demands for schooling should be settled before making any school reform.

**Key words:** functions of schooling, importance of schooling by its functions, effectiveness of schooling by its functions, multiple functions